

##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

###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이아름 (A-Reum Lee)\*\*

이숙경 (Sook-Kyung Yi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xperiences of novice teachers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who are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in the biblical worldview. For this purpose,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multiple sources were collected including various document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are as follows; novice teachers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xperience several difficulties and growth on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s. The difficulties could b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national curriculum and of experiencing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s before coming to the teaching fields, the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the difficulty on how to integrate the biblical worldview when they setting up learning objectives, selecting curriculum contents and organizing learning activities, and the lack of time and environment for developing the curriculum. The growth they experienced could be classified into 2 parts; the professional growth as a Christian teacher, and the growth of personal faith and attitude toward their own life as a Christian.

**Key Words:**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novice teachers,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biblical curriculum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 2021년 2월 24일 접수, 3월 15일 최종수정, 3월 1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석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leea456@hanmail.net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교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eau49@hanmail.net

## 1. 서론

전통적으로 교사는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어 제시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데 주력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교의 상황, 지역 사회의 상황, 학생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때문에 일반적 수준으로 개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의 특수성이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역·학교·교사 수준에서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강조되어 왔다(박은경, 2018).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강조되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전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나가는 적극적 역할로 탈바꿈 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 연구 분야의 흐름 안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들에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의 철학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성경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재구성 사례에 대한 연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경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재구성 사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실제 단원을 성경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재구성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의도와 학생들의 배움이 드러나고, 이 중 학생들의 배움과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개인이 단원 개발 및 재구성 과정에서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마주하게 되고, 이후 다른 교과 및 단원에서 재구성에 대한 경험을 또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교육과정의 성경적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는 주로 기독교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이정미, 2008; 이해지, 2011).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와 관련한 연구들은 교사 개인의 재구성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미하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대안학교 현장으로 온 교사들의 배경이 기독교립초등학교에 비해 다양하고,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권이 더 많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사의 재구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 안에서 초임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고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이지혜, 2009; 박정순, 2010; 유일한, 2018; 남가현, 2018), 초임교사들의 직무 능력 관련 연구(이은진, 2008; 박혜민, 2009; 박주희, 2016), 초임교사들의 수업과 관련한 연구(김기철, 2002; 이정아, 2009; 서지원,

2016)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양적, 질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맥락 안에서 대안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경험하는 초임교사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성경적 재구성에 대한 경험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둘째,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통해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가?

본 연구에서 재구성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중 ‘어려움’과 ‘성장’ 두 가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한 이유는 초임교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김갑성(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임·적응기 교원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업무분장, 학생 및 학부모 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조직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또한 교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꿈을 실천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들은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교사라는 소명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시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 또한 기독교대안학교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고, 특히 교과지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곧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어려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총론 해설서, 교과서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 교육 사조에 기초한 신념들이 깔려 있어 성경적 세계관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기독교교육학자, 기독교사들은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을 구분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재춘(2010)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등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기독교인 학자들 간에도 조금

씩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즉, 기독교 학자나 교육을 연구하는 기독교 연구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이나 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학문,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과정 등과 관련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재해석해낼 것인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선요(2014)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적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제 기독교학교 내에서도 큰 틀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동일하게 공유하지만 실제적인 학교의 교육 목표,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다양한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성경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모형들을 연구해 왔다(Albert Greene, 1998; Harro Van Brummelen, 2002; Overman C.&Johnson D., 2003). 실제적인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세계관 통합을 다루는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대표적인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4가지를 살펴본다.

## 2.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Hay(1999)는 교육 내용의 개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학습과정에서 이 개념들이 학습자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이정미, 2010). 교육과정 재구성 및 개발은 총 11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를 구조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Hay (Hay, 1999)

Hay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교과목에 대한 성경적 원리 또는 기본 신조 작성하기
2단계	교과 전체적 교육내용의 목차 또는 단원제목 요약 정리하기
3단계	한 대단원을 선택하고 단원의 소주제들 정리하기
4단계	한 단원을 선택하고 그 단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주제 진술하기
5단계	한 단원에서 학습될 핵심 기본 개념들을 규명하기
6단계	5단계의 개념 및 원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7단계	단원주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실재적 삶의 문제(필요)들 규명하기
8단계	단원 학습목표를 진술하되 학습한 바를 적용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여 진술하기
9단계	평가하기
10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기
11단계	단원계획 평가하기

Greene(1998)은 교육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과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위한 수업 모형을 디자인하였다. 그

는 다양한 교과와 내용들을 통합하고 집단 학습의 장을 통해 상호 협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것이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고(Albert Greene, 2000), 이를 위해 ‘알타비스타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Greene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기독교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과는 다르다(김윤권, 2008: 110). 그는 수업 모형의 기본 구조를 ‘기본 4단계’로 제시하는데, 그 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2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Greene (Greene, 1998)

Greene의 수업 모형의 기본 구조	
1단계 도입(Introduce)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2단계 제시(Present)	수업의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확하게 전달
3단계 실행(Practice)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조작 등을 통해 실행하여 그 주제와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4단계 반응(Respond)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기

Van Brummelen(2002)은 성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른 기독교적 수업 모형이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와 특성들에 집중되거나 가르치는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강조했다면, 브루멜렌의 수업 모형은 단위 수업계획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교실 수업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전체의 의미를 더 띄고 있다(김윤권, 2008).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인 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정미, 2010). Van Brummelen의 단위 개발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3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Brummelen (Brummelen, 2002)

Brummelen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 정하기
2단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기
3단계	단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4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고 선택하기
5단계	국가교육과정 기준(목표)를 통합시키기
6단계	계획된 학습활동의 일정표 계획하기
7단계	학습 자료들 선택하기
8단계	학습평가 계획하기
9단계	단원의 효과 제고하기

Overman과 Johnson(2003)은 성경의 진리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학습 지식과 개념에 잘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과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실제 교실 수업에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BWI 계획라는 모형을 만들었다. 아래 표는 Overman과 Johnson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이다.

Table 4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Overman&Johnson (Overman&Johnson, 2003)

Overman&Johnson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고 개발자와 적용 대상의 정보 적기
2단계	단원제목과 목표 진술하기
3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기
4단계	단원학습 내용이 성경적 세계관 요소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규명하기
5단계	단원에 통합되어야 할 구체적인 성경적 진리 명료화하기
6단계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위한 목표 진술하기
7단계	성경적 세계관의 통합을 위한 학습활동 계획하기
8단계	수업 후의 의견 쓰기

### 3.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

앞서 소개한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다룬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교육부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을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 등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으로 구체화시켜 실제로 계획, 실행, 평가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정미, 2008: 47-49). 그동안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박현주, 1996; 백승수, 1999; 김혁수, 2000; 김평국, 2004; 서경혜, 2009; 허영주, 2011; 김현규, 2015; 제성준, 2015; 고흥석, 2020).

최근에는 더 나아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신의 철학과 신

념을 녹여내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교사 수준 교육과정’ 혹은 ‘교사 교육과정’이라 부르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미향, 2015; 강현석 외, 2017; 추광재 외, 2018; 권민희 외, 2019: 1-26.; 박수원 외, 2020; 교사교육과정연구회, 2020). 정미향(2015)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수업에 초점을 두고 ‘주어진 국가교육과정으로 스스로 수업을 만들거나, 교과서를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재해석, 재구성하여 교과서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교육과정 읽기, 목표 및 중점 과제 수립, 성취기준 선정, 연간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 설계, 수업 실천, 성찰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교육과정에는 교사의 철학과 신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교사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 자체가 곧 교육과정이다.’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하게 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철학과 세계관을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교사의 역량 수준에 따라 기독교대안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개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수준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질 때, 교사는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교사는 ‘설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녹여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에 한 학년·학급 운영을 위해 연간 교수·학습계획, 연간 시수표, 평가 계획, 단원 수업계획 등을 하게 되고, 이후 수시로 수정을 해나가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육과정 문해력,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대한 이해 등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성경 지식, 학문 개념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역량 등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역량이 부족할 경우,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교사가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재구성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기 어렵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과 성경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연결되는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세계관에 기반하여 계획한 교육과정을 학급에서 실제로 전개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단원 내(간)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주제 중심 재구성 등 구체적인 수업의 형태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계획한 수업을 교실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실행력,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며 그 다음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려는 반성적 성찰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 교사가 계획한 수업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수업은 문서화된 계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실행한 수업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배움 사이에 괴리가 일어난 수업이 반복적으로 답습될 수 있는 한계가 생긴다.

셋째, 교사는 '생성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계획하여 실천한 교육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돌아보며,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학문 개념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여부,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점검과 성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록에 남겨 그 다음 교육과정 재구성을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의도한 교육목표가 학생 수준 교육과정에서 드러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물을 남겨 놓고,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교사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할 때 가지게 되는 역할과 갖춰야 할 역량,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교사 개인의 영성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확고한 교육철학이다. 성경적 교육과정이 일반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교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역사가 교육과정에 녹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이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실행, 생성하는 교사 개개인의 영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초임교사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 개인의 사고 과정과 이전까지의 경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는 질적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면접, 각종 문서 등을 고루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면 질문지, 교육과정 재구성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동기, 의도, 경험 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과 연구 참여자의 생각의 흐름을 듣기 위하여 심층 면담법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5 research procedure

과정	시기	내용
면담 질문 개발 및 수정	7-8월	기독교대안학교에 오게 된 배경,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인식 및 경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중 겪은 어려움 및 성장과 관련된 면담 질문 개발
D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8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C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25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B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26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A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11월 21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1차 추가 서면 면담 및 자료 수집	10월 6일 -10월 31일	수업 성찰 일기, 재구성 관련 계획안, 주간학습안내물 등 자료 수집
2차 추가 서면 면담 및 자료 수집	11월 1일 -12월 15일	이메일, 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추가 질문, 관련 자료 수집

## 2. 연구 참여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고 있는 초임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인가 여부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제약 없이 재구성할 수 있는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 소속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근무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 목표의 특성이다. 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재구성의 방법과 요구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국가에서 개발하는 교과서를 활용하되,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적 재구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들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속한 학교급 및 직위이다. 초등학교급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범교과를 다루는 데 반해 중등학교급에서는 개별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다룬다. 이 때문에 재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급 기독교대안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 경력 연수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실천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것이기에 대안학교에서 근무한 연수만을 세어 0-5년차인 교사를 초임교사로 정의하여 선정하였다. 단, 이전에 경험했던 교육 경력은 성경적 재구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면담 질문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담당 학년이다. 초등학교급 안에서도 학년군에 따라 재구성 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누어 골고루 선정하려고 하였다. 여섯째, 다양

한 연령대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교사들은 공교육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직업적 배경에 있다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대, 30대, 40대 연구 참여자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 참여자 3명은 동일한 학교, 1명은 상이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6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이름	연령	대안학교 교육 경력	담당 학년	성별
A교사	20대 후반	5년	6학년	여
B교사	20대 후반	2년	5학년	남
C교사	40대 초반	3년	4학년	여
D교사	30대 초반	1년	1학년	여

### 3.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선택한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문서자료 수집이다. 각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자료와 함께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간수업계획, 수업성찰일기, 수업지도안, 재구성 교육과정 양식 등의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후 면담 내용과 연계하여 추가로 수집이 필요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추가 수집하였다. 미리 연구 참여자에게는 해당 자료들은 본 연구만을 위해 활용되고, 연구 이후에는 폐기할 것을 알렸다.

자료 분석은 Creswell(2009)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절차 6단계에 따라 심층면담, 수집한 각종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단상 등을 메모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1차 주제어로 표기하여 유목화한 후, 전사 자료를 다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읽어 핵심 의미가 비슷한 주제어들을 다시 묶어 2차로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재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4가지 범주, ‘재구성 과정을 통해 경험한 성장’에 해당하는 2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정리한 범주들을 연구 결과의 각 영역별 제목으로 정하고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간 재구성 사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성장에 대하여 각각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1)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재구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교육, 초등교육, 국어교육 등 전공이 달랐고, 전공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재구성 경험 여부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급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가 대상이었기에 초등교육을 전공한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할 때 보다 수월하다고 느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 수준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있으나 초등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와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재구성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교급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가 낮을수록 재구성 과정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전 면담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다음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오기 전 공립 고등학교에서 국어과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C교사와 학부 시절 초등학교급 교육과정을 배웠던 경험이 재구성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B교사의 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과목만 가르치는 거니까 그 과목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그냥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중략) 초등에 오면서 교과 자체도 많아지고 대상도 너무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공립에서 했던 이 경험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교육과정 재구성 시 교대에서 4년간 배운 초등교육 전공지식 및 임용고시 준비를 통해 배웠던 교육학 및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지식들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재구성을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대학교 과정과 시험 준비를 통해 미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B교사, 1차 대면면담)

또한, 실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본 경험이 적을수록 재구성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이 갖고 있어서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협의하여 다양하게 재구성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도나 예시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A교사의 예다.

사실 (가르치기 시작한 곳) 여기(기독교대안학교)가 처음이라 재구성이 막막했어요. (중략) 근데 공립이 아닌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재구성이 필수인 것 같기는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죠. 처음엔 그런 게 별로 없고... 제가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전공에 따라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교사마다 다르다.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실제 재구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편차가 크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가르칠 내용, 학습자의 수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성경적 재구성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개념 이해에 대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비교하여 각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교과와 수업 차시에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질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다음은 A교사와 C교사의 예다.

모든 교과마다 다 그런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성경적 교육과정이 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걸 정의내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중략) 기독교적인 가치를 의도해서 넣지 않고도 기독교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A교사, 1차 대면면담)

가르치려는 개념은 같은데, 그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주제별로, 의미별로 재구성 한다면... 저는 그게 안 해봐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는 학문) 개념들이 제대로 가르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아니라 너무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C교사, 1차 대면면담)

### (3)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 대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해 이정미(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목표 설정에서 겪은 어려움’, ‘학습내용 선정에서 겪은 어려움’, ‘학습활동 구성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논의할 어려움은 ‘학습목표 설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다.

첫째,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향과 방법이 맞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경적으로 재구성한 목표는 국정 교과서나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더하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혼자 하게 되면 국정 교과서나 지도서와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문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교사 스스로 확신 있게 목표를 세워 단원 및 차시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이는 동일한 학습 개념이라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이 다르면 목표 설정도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임교사로서 자신의 해석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혹 편협하거나 오류가 있는 배움으로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예다.

지도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해당 학년 수준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고 어디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혼자 판단해야 하며 이 내용들이 다음 학년에 어디까지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교사, 2차 서면면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 교사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가르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둘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학습목표를 재설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요인으로 ‘검정고시’가 언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학습목표는 그대로 두고 목표와 관련된 학습방법 및 자료를 성경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외부 요인이 교사의 학습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상 학습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으면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교사의 재구성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대면 면담, 2,3차 추가 서면 면담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의 수업성찰 일기를 살펴보면 새로운 성경적 목표를 추가한 재구성 수업보다 기존 성취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성경적 가치를 담은 활동과 자료 선정에 초점을 둔 수업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B교

사의 예다.

저는 기독교적 재구성 시에도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는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특히 6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야 초등학교 졸업 인정이 되는데 그 시험의 범위와 수준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며 학습목표를 크게 건드리는 재구성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학습목표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의 활동이나 수업 자료 등에 성경적 내용을 가미하여 재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B교사, 2차 서면면담)

두 번째로 논의할 부분은 ‘학습내용 선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단원을 개발하기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들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된 학습내용이나 자료로 대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초임교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단원을 개발하는 것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즉, 수업 시수 등 외부 환경의 제약, 개발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1-2차시 분량의 수업을 재구성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났다.

첫째, 세계관의 관점에서 학습개념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가능하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경구절과 예화를 연결 지으려고 할 때 충분한 배경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교사 수준에서 재구성을 할 때 성경적 배경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충분한 보충 자료가 부족하고 교사 개인의 성경 배경 지식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어려움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A교사의 예다.

6학년 2학기 과학과 ‘신체’ 단원에서 (중략) ‘우리 몸에서 제일 센 근육이 심장이고, 심장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뛰고 있다. 이런 점도 평소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중략)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성경구절이나 예화를 성경에서 가져오고 싶다 해도 구체적인 말씀 구절과 그 말씀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A교사, 1차 대면면담)

둘째, 학습자의 반응에 의해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 사고 수준, 영적 성숙도 등 학습자의 다양한 요인들이 학습내용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추가로 선정한 학습내용이 학생들에게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져 의도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재구성의 주체인 교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반응이 교사의 재구성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재구성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C교사의 예다. C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추가 서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에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4학년 과학과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창조론과 관련된 창조박물관과 진화론 관련된 지질박물관을 가서 아이들하고 두 관점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해야지 했는데요.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창조론을 너무 맹신하는... (중략) 어릴수록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략)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해버리게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C교사, 1차 대면면담)

셋째,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영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성경적 관점에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추가할 때, 학습자가 학습 개념 및 관련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성장을 이룬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내용 선정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영적 수준이 교사의 재구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D교사의 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 신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르쳐도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은 아직은 분별하는 힘이 없으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세 번째로 논의할 부분은 ‘학습 활동 구성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학습활동 구성 시 기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학습활동이나 자료들을 ‘걸러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다음은 A교사의 예다.

예를 들어,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많이들 하는 ‘마리오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폭탄 게임이요. 그런 걸 보통은 모둠별 게임으로 해서 모둠별로 경쟁구도가 되고 점수를 뺏고 하는데, (중략) 이런 게 경쟁구도를 통해서 잃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방법을 좀 수정해요. 활동의 구도 자체를 모둠전이 아닌 단체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초등교사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는 스토리텔링 자료 중에 영화 일부를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자료

를 만드는데, 영화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제외하고 ‘업’이나 ‘라따뚜이’ 같은 자료들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있는 자료들 중 학습활동을 골라서 정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학습활동 구성에 있어 성경적 가치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관점을 강의로 제시하는 방법’과 ‘학습 개념과 관련한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이정미, 2008)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방법으로 활동을 구성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강의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주입하는 형식의 가르침이 이뤄져서 적극적인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학습개념을 강의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부자연스럽게 느껴 내면화하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활동 선정의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고민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깨달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성경적 학습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철학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A교사의 예다.

6학년 국어과 ‘글에 있는 생각과 비교해요’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중략)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애들끼리 생각도 좀 나눠보고 그 와중에 내가 마무리로 했던 말이 학생들 안에서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했죠. 애들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촘촘하게 계획하지 못한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둘째, ‘학습 개념과 관련한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할 때에는 핵심 개념과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 사이의 기독교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가르쳐야 할 학습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뽑은 가치와 이를 성경적 관점으로 재조명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학습활동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음은 B교사의 예다. B교사의 이러한 연구 과정은 사전 면담지, 대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5학년 2학기 사회 역사부분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나오는 계속 제시되는 불교 유적에 대해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중략) 수많은 불교유적들(예-팔만대장경)이 종교적인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만든 유적임을 강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강조하며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애국심과 기독교적 가치를 결합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독교 대장경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B교사, 사전 질문지)

#### (4) 재구성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에 따른 어려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온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그 역할들 안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은 단순히 가르칠 내용과 방법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적 개념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사고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협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그런 시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래 연구 참여자들의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확보의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질문지, 대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에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시간에 구애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깐 같이 충분히 고민할 걸 제안하기도 쉽지 않고요. (중략) 혼자 생각해서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혼자 설교하게 되요. 그런데 (중략)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학교 행사 같은) 원가가 많기도 하고... (A교사, 1차 대면면담)

같이 연구하는 것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따로 만날 약속도 잡아야 되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 까 나 혼자 생각하고 구상할 때보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일과는 뽁뽁하고... (B교사, 1차 대면면담)

학교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서 수업 준비를 위한 연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동학년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이 조금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기독교대안학교마다 일과와 연간 학교행사 개수가 각기 달라서 위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에 온 초임교사들이 학급운영, 상담, 학교 행사 등 바쁜 학교 일과 안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검정고시라는 학력 인증 평가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담감이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대부분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다. 다음 학교급에 올라갈 수 있는 학력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학력평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강조하는 정도가 달라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고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필평가 점수로 학업성취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검정고시의 특성상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공식적인 학력 인정 시험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권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다음은 B교사의 예다.

국가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단위로 시행해버리는 평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완전한 재구성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검정고시가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인가를 받고 졸업만 해도 애들이 학력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교사, 1차 대면면담)

세 번째 요인은 함께 연구하는 교사와의 조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 재구성 과정 중 세계관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대신 큰 세계관적 해석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 재구성 과정 중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면담 인용문이다. C교사와 D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대면면담, 2차 추가 서면 면담, 수업 성찰 일기에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거의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개인의 스타일, 성격이 달라서 교과 재구성에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다른 선생님의 경우 주어진 계획을 꼼꼼히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더 많았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확히 있고, 다들 그것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나 철학이) 그렇게 다

르진 않아요. (중략)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이니까 가능하면 좀 더 아이들을 풀어주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게 1학년의 목표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옆반 선생님은 학교 생활, 규칙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D교사, 1차 대면면담)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재구성한 활동을 준비할 때, 학급 고유의 활동으로 할 것인지, 학년 전체 활동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C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1차 대면면담, 2차 추가 서면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음 C교사의 예다.

지금 아침에 기독교 고전 읽어주기 하는데 (중략) 사실 저희 반만 읽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반 눈치가 보이는 면도 있어요. (중략) 이런 예를 하나 봤을 때도 내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걸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같이 가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맞춰가고 설득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 2.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장

### (1)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재구성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첫째, 기독교사의 성격 중 ‘기독교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내리고 그 개념을 점차 명료화하고 있었다. 즉, 재구성 과정을 통해 기독교사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더 확고하게 세우게 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며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재구성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교사가 교육과정 그 자체’라는 명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의 성경적 세계관이 지식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확신을 갖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이 일련의 사고 과정 전체가 성경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A교사와 B교사의 예이다.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 건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까?’ 하는 걸 고민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게 될 때요. (중략) 그런데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좀 더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배우는 모든 게 다 사

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A교사, 1차 대면면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느끼는 점은 교사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과서나 책에 존재하는 단지 글로 이뤄진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사라는 인격체를 통해 실제로 구현되고 언제든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교사를 통해 구현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인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B교사, 사전질문지)

둘째, 기독교사의 성격 중 ‘교사’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한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교내 재구성 관련 연수, 동료 교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업의 정체성 등 철학적인 면부터 성경적 수업기술, 수업방법, 발문 등 수업과 관련한 실제적인 면까지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성경적 수업으로 실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고민과 실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교육과정 문해력, 자신만의 교육과정 철학을 세우고 구체적인 차시 및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교사교육과정 구성 역량, 단원의 핵심 가치를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수업으로 실행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실행 및 성찰 능력, 교육과정 재구성을 꾸준히 시도하고자 하는 인내 등이다. 이는 자칫 한 차시 한 차시 개별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는 초임교사의 관점을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과업을 통해 한 단원, 한 학기 수업 전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은 C교사의 면담 인용문이다.

수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니깐 수업기술 성장한 것 같고 (중략) ‘내 수업은 뭘까?’ 하는 수업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할 때는 한 차시만 재구성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전체를 보게 되요. 그러다 보니깐 한 단원, 한 학기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게 성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과정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성경적 가치를) 가르칠 때 그걸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우연히 스며드는 것처럼 된다면 이후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수업을 재구성하거나 활동을 계획했을 때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교사 스스로가 결국 나중에 그걸 의도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이러한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이 교사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있었고, 교사 효능감의 향상은 곧 전문성을 더 계발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재구성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과정 자체가 이론적 지식보다 더 도움이 되었고, 이 실천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키워가고자 하는 동기와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예이다.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수업할 때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C교사, 2차 서면면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이걸 해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수업 작은 것도 하나 안 해보면 그보다 더 어떤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작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좋은 수업으로, 좀 더 심오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저는 오히려 학교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석사 논문에서 ‘교육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썼던 그 부분을 교실 상황에서 막상 녹여내려니까 막연한 거예요.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와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짜보는 것이 저한테 (교육철학과 현장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D교사, 1차 대면면담)

## (2)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 성장

연구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훈련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수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터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었다. 다음은 A교사와 C교사의 예이다.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은 나 혼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붙여주시는 사람이나 순간순간 드는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확신이 들어서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저 스스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아니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과수업과 통합하기 위해 성경을 더 연구하는 자세도 갖게 되었죠. (C교

사, 3차 서면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살아있는 신앙과 소명의식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를 스스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한층 성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B교사와 D교사의 예이다. 특히 B교사는 수업성찰일기에서 재구성한 수업을 통해

직장에 있는 시간 내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중략) 이런 모든 게 개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부분인 것 같아요. (중략) 애들한테 이 (성경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저도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여기 와서 제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B교사, 1차 대면면담)

교육과정 내용도 제가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개념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라는 소명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려는 기독교대안학교 현장 속 기독교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네 명의 초임교사들은 재구성 과정에서 크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전의 재구성 경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이해, 재구성 방법,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과 환경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전의 재구성 경험이 부족하여 생기는 어려움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오는 교사들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교사들은 공교육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전공, 삶의 배경, 교사라는 직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 등이 다양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속한 초등학교급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온 교사들보다 중등교원자격증을 지닌 교사,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온 교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초등교육에서 실천하는 재구성 실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대안학교 현장에서 처음 접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예비교사들에게 해당 학교급에 맞는 교육과정 연수, 기초적인 재구성 원리 및 실습 훈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재구성 방법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앞서 김재준(2010), 김선요(2014)가 논의한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과정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오기 전, 혹은 초임교사 기간에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토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 및 환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기독교대안학교의 현실적 상황과 연결된 부분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의 교육철학, 교사의 철학,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교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과정이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는 학교의 명확한 세계관과 철학,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맞춰가기 위해 동학년 교사들 혹은 학교 전체 교사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학교 행사 등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교사 간 협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성경적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 및 준비를 위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또한,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 미인정, 재정 지원이 없어 불안정한 재정 상황 등 제도적인 환경이 초임교사들로 하여금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안학교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향후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실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안학교에 근무하는 네 명의 초임교사들은 '기독교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개인의 신앙

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통해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왜냐하면 교사가 처음 교직 현장에 와서 갖게 되는 교육철학,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교수 스타일 등이 향후 어떤 교사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선인데, 이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조직 안에서 수많은 과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익혀나가야 하는 초임교사들에게 성경 연구와 교육과정 연구를 똑같은 비중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임을 인지하고 한 쪽으로 연구 시간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가르침이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한 교사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철학과 신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존재와 삶이 학생들에게 가르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생성자로서의 교사가 학생들의 배움과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게 되어 가르침에 있어 역량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되면서 학생, 교사 모두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사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사 개인의 신앙, 인격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교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성장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는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재구성 관련 멘토링 혹은 개별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사 연수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이 모여 학년별,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저경력 교사들이 고경력 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러나 때때로 초임교사와 고경력 교사 사이에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 이해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거나 초임교사가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경우, 학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교사 연수만으로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구성 실천 경험이 많은 선임교사나 수석교사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해 교사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실천을 돕기 위하여 '수업나눔 공동체'를 학교 문화로 정착



시킬 것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교사 수준 교육과정은 교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읽기, 연간 교수·학습 계획, 수업 실천, 성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 실천한 수업을 교사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김효수 외, 2018), 초임교사라면 더욱이 이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업나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재구성을 실천한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나누고 성찰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안에 정착된다면, 함께 참여하는 초임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별 핵심 개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 자료들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급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지도서와 같이 해당 학년, 해당 교과를 재구성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안내 자료들이다. 따라서 신학자, 기독교교육학자, 기독교사 등이 함께 모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개념들을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로 정리하여, 이를 성경적 관점에서 서술한 주제진술문이 정리된 도서 형태로 제작되길 제안한다.

넷째, 예비 기독교 교사들과 초임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구성 예시와 타 학교의 재구성 사례들을 접하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을 더 넓고 깊은 단계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접하고 배워서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재교육의 통로가 다양하게 생기길 기대한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연합하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거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자료 공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고홍석 (2020). **듀이의 심미적 경험이 교사 수준 교육과정 논의에 주는 시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Ko, H. S. (2020). *Implications of John Dewey's Aesthetic Experience on the Discussion of Teacher-Level Curriculum*.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교사교육과정연구회 (2020). **교사교육과정: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서울: 기역.
- [Teacher Curriculum Research Group (2020). *Teacher Curriculum: Teacher as Curriculum Maker*. Seoul: Giyeok.]
- 권민희 외 (2019). 초등교사의 수업 만들기 경험에 대한 자서전적 탐구. **초등교육학연구**, 26(1), 1-26.
- [Kwon, M. H. (2019). An Autobiographical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 of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26(1), 1-26.]
- 김갑성 (2014). **교원의 교직경력개발 고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Kim, G. S.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s' teaching career.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기철 (2002).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지식 형성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Kim, K. C. (2002). *An analysis of the dynamic process that influence on subject expertise in physical education of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김명자 (2015).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im, M. J., (2012). *The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Teacher Training in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김선요 (2014). **현대 교육의 이해: 성경적 비판과 해석**. 서울: 교육과학사.
- [Kim, S. Y. (2014). *The understanding of modern education: biblic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Seoul: Kyoyookbook.]

- 김성훈 역 (2007). **진리와 하나된 교육**. Overman, C. & Johnson, D.(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Kim, S. H. (2007).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Seoul: Yeyoung-communication. Trans. Overman, C. & Johnson, D.(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 Washington:The Biblical Worldview Institute]
- 김윤권 (2008). **개혁주의 기독교 수업 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Kim, Y. K. (2008). *A Study on the Reformed Christian Instruc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김재춘. (2010).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정책.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저).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pp. 227-254). 서울: 교육과학사.
- [Kim, J. C. (2010). Curriculum, Textbook, Assessment policy. In CSERC. (Eds.).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school education* (pp. 227-254). Seoul: Kyoyookbook..]
- 김평국 (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22(2), 135-161.
- [Kim, P. G. (2004). How Are Elementary Teachers Reorganizing Contents of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2), 135-161.]
- 김혁수 (2000). **초등 교사의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Kim, H. S. (2000). Elementary Teacher's Reconstruction and Practice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김현규 (2015). 국가교육과정 문서 안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용어의 의미 연역. **통합교육과정연구**, 9(2). 54-82.
- [Kim, H. K. (2015). A Semantic Analysis of the Curriculum Jaegusung.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2), 54-82.]
- 김효수 외 (2018).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수업나눔**. 서울: 좋은교사.
- [Kim, H. S. et al. (2018). Lesson-Sharing; building a teacher and teacher-community. Seoul: Goodteacher.]

- 남가현 (2018).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Nam, K. H. (2018). A narr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adaptation of beginning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박수원 외 (2020). **교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서울: 테크빌교육.
- [Park, S. W. (2020). *Teachers' Curriculum*. Seoul: Tekville.]
- 박은경 (2018). **듀이의 경험 이론이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에 주는 시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Park, E. K. (2018). *Implications of John Dewey's Theory of Experience on the Discussions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박정순(2010).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Park, J. S. (2010). *A narrative inquiry into new teachers' experience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in 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박주희 (2016).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멘토링 효과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Park, J. H. (2016).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Master Teachers' Mentoring and their Job Satisfaction-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박현주 (1996). 열린 과학 교육평가를 위한 소고. **열린교육연구**, 4(2), 45-52.
- [Park, H. J. (1996). Advice for open science education evalu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2), 45-52.]
- 박혜민 (200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직무에 대한 교감의 관여한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Park, H. M.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imit of the Supervision by a vice-principal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백승수 (1999). **교육과정 지각,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방법 적용간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Baek, S. S. (1999). *The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rriculum Awareness and Reorganization to Their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nam, Korea.]
- 서경혜 (2009).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과정연구**, 27(3), 159-189.
- [Seo, K. H. (2009). Teachers' Experience of Reconstructing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3), 159-189.]
- 서지원(2016). **교육대학의 양성과정이 초임 초등교사의 과학수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Seo, J. W. (2016). *Influence of University Curriculums on a Novice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유일한 (2018). **한 소규모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사회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Yu, I. H. (2018). *An Autoethnography on the Socialization of a Novice Teacher in a Small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buk, Korea.]
- 이부영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Van Brummelen, H.(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서울: IVP.
- [Lee, B. Y.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Seoul: IVP. Trans. Van Brummelen, H.(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Colorado Springs: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이은진 (2008). **초등 초임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E. J. (2008). *Need Assessment for In-service Training Programme for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Initial Teachers' Performanc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정아 (2009). **초등학교 초임 교사가 수업 시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식에 관한 면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A. (2009). *An Interview Study on New Teachers' Difficulties with Teaching and Ways of Dealing with Them*.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정미 (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M. (2008). *A Case study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toward Christian world view in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지혜 (200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Lee, J. H. (2009). *A Study on the Professional Adaptation of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nam, Korea.]
- 이해지 (2011). **기독교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H. J. (2011). *A case study on teachers' experience of reconstructing curriculum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미향 (2015).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기술. **통합교육과정연구**, 9(1), 43-68.
- [Jeong, M. H. (2015). The Practice of the Same Grade Level Teachers'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1), 43-68.]
- 추광재 외 (2018). **교사, 교육과정 중심에 서다**. 서울: 피와이메이트.
- [Chu, K. J. et al. (2018). *Teacher, standing in the center of curriculum*. Seoul: PYmate.]
- 허영주(2011). 교사 상상력의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9(1), 137-163.
- [Hur, Y. J. (2011). Importance of teacher's imagination in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1), 137-163.]
- 현은자 외 역 (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Albert Green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CUP.

[Hyun, E. J. et al. (2000).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Seoul: CUP. Trans. Albert Green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Springs: ACSI]

#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

##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이아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석사)

이숙경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신저자)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미만의 연구 참여자들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재구성 관련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재구성 과정에서 크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전의 재구성 경험 부족,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이해, 재구성 방법(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 선정, 학습활동 구성),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과 환경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차원, 학교 공동체 차원, 기독교 교육계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질적 연구